한국심리학회지 : 상담 및 심리치료
The Korean Journal of Counseling and Psychotherapy
2011, Vol. 23, No. 4, 1137-1160

음악방송 노출을 통한 성적대상화 경험이 여자고등학생의 부정적 섭식행동, 수행불안 및 학습몰입에 미치는 영향

김 시 연　　서 영 석†

연세대학교

본 연구에서는 대상화 이론 및 선행연구 결과를 토대로 음악방송 노출을 통한 성적 대상화 경험이 사회문화적 가치의 내면화, 신체감시 및 신체 수치심을 매개로 부정적 섭식행동, 학습몰입 및 수행불안에 영향을 미치는 인과적 구조모형을 설정하고, 서울 소재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여자고등학생 282명을 대상으로 모형의 적합도를 검증하였다. 특히 음악방송 노출이 부정적 섭식행동, 학습몰입 및 수행불안에 미치는 간접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부트스트랩 절차를 적용하여 간접효과의 유의도를 확인하였다. 우선, 가설모형은 자료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나 대상화이론이 한국여자고등학생에게도 적용 가능한 이론임이 입증되었다. 또한 음악방송 노출과 종속 변인 간 직접효과를 설정한 경쟁모형에 비해 내면화, 신체감시 및 신체수치심의 완전매개효과를 가정한 가설모형이 더 적합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사회문화적 가치의 내면화는 음악방송 노출과 부정적 섭식행동, 학습몰입 및 수행불안 간 관계를 매개하는 주요 변수이자 영향력이 가장 큰 변수로 나타났다. 연구결과를 토대로 시사점과 추후연구를 위한 제언을 논하였다.

주요어 : 대상화이론, 음악방송 노출, 여자고등학생, 부정적 섭식행동, 학습몰입, 수행불안

† 교신저자 : 서영석, 연세대학교 교육학과, 서울시 서대문구 연세로 50
Tel : 02-2123-6171, E-mail : seox0004@yonsei.ac.kr

www.kci.go.kr

2011년 6월 공정거래위원회는 '대중문화예술인 표준전속 계약서'를 개정하면서 청소년 연예인의 과다노출을 요구하는 행위를 방지하고, 신체적·정신적 건강, 학습권, 인격권, 수면권, 휴식권 및 자유선택권 등 기본적인 인권을 보호하는 조항을 신설하였다(공정거래위원회, 2011). 이러한 배경에는 당사자인 청소년 연예인의 인권을 보호하고자 하는 일차적인 목적이 있지만, 또래 집단에게 미치는 청소년 연예인의 막대한 영향력을 고려하여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고 좋은 역할모델을 제시하려는 시도 역시 존재하고 있다. 대중매체에 등장하는 청소년 연예인의 경우 대중매체 및 사회문화적 압력에 가장 많이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심리적 어려움에 취약한 집단인 동시에 직접적으로 청소년 집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대상이다. 따라서 청소년 연예인에 대한 보호조치를 강화하고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려는 제도적인 변화 및 시도는 그들 뿐 아니라 전체 청소년의 심리적 건강을 위한 중요한 노력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실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에서도 부모 특히 어머니와의 관계, 또래집단의 압력, 대중매체의 영향 등 크게 세 가지 요소가 청소년의 심리적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핵심적인 요소인 것으로 나타났다(Field et al., 2008; Peterson, Paulson, & Williams, 2007). 이렇듯 대중매체가 청소년에게 미치는 영향력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강화되고 제도적 측면에서의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상담 및 심리치료 분야에서 청소년들의 심리적 어려움에 미치는 대중매체의 영향에 대한 통합적인 관점을 제시한 연구들이 미흡한 실정이다. 따라서 상담 및 심리치료 분야에서 청소년의 어려움을 이해하고 적절한 예방 및 개입을 통해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대중매체가 청소년의 심리적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체계적이고도 통합적으로 연구할 필요가 있다.

청소년을 대상으로 대중매체의 영향력을 살펴본 선행연구들은 대중매체가 청소년의 신체상 및 섭식행동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일관되게 보고하고 있는데, 특히 여자청소년들이 남자청소년들에 비해 더 많은 영향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예, 장희순, 김태련, 2006; Field et al., 2008). 예를 들어, Field 등(2008)의 연구에서는 여학생의 10.3%가 일주일에 한 번 폭식을 하거나 음식을 토하는 등의 거식행동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가장 큰 이유는 대중매체에 등장하는 연예인처럼 보이기 위해 노력하기 때문이었다. 반면, 남학생의 경우 단지 3%만이 섭식장애 증상을 보였으며, 대인관계에서 외모에 대한 부정적인 말을 듣는 것이 섭식장애를 유발하는 가장 큰 원인으로 드러나 성별에 따른 차이가 존재함을 알 수 있었다. 장희순과 김태련(2006)의 연구에서는 초등학생, 고등학생, 대학생 여성을 대상으로 비디오 자료를 시청하게 한 후 신체상의 지각과 태도의 변화 및 차이를 알아보았다. 그 결과, 날씬한 여성이 등장하는 비디오를 시청한 집단의 신체존중감이 저하되었으며, 이 중 고등학생들이 다른 집단에 비해 시청 전후의 변화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여자청소년, 특히 여자고등학생들이 타 집단에 비해 대중매체의 영향을 더 많이 받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렇듯 여자청소년이 대중매체에 취약하고 그 결과 섭식장애나 신체존중감이 저하되는 등 부정적인 결과가 초래된다는 것이 입증되었지만, 대부분의 연구에서는 대중매체가 섭식장애에 미치는 과정을 체계적으로 탐색하지 못한 채 단순상

www.kci.go.kr

관만을 살펴보거나, 대중매체로부터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다른 심리적 어려움(예, 우울, 불안, 학습몰입 등)을 변인으로 채택하지 않고 섭식 관련 행동만을 종속변인으로 채택한 한계를 지니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연구결과 및 제한점과 대상화이론을 토대로, 대중매체가 여자청소년의 심리적 건강 및 학습 관련 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통합적인 모형을 제시하고 이의 적합성을 검증하고자 하였다.

Fredrickson과 Roberts(1997)는 대상화이론을 통해 성적대상화 경험이 여성의 심리적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체계적으로 설명하고 있다(그림 1 참조). 대상화이론에 따르면, 여성은 남성에 비해 성적대상화 경험을 더 많이 하고 이로 인해 다양한 심리적 문제들에 노출된다. 여기에서 성적대상화 경험은 여성의 외모에 관심을 갖는 대중매체에 노출되거나 외모에 의해 평가받고 이용당하는 등의 경험을 의미하는데, 이를 통해 여성들은 타인의 시선을 내면화하게 된다. 대상화이론에서는 이러한 내면화 과정을 자기대상화(self-objectification)라고 지칭하는데, 이는 자신의 신체를 지나치게 의식하고 습관적으로 타인과 비교하는 신체감시행동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자신의 외모에 대한 지속적인 감시는 신체에 대한 수치심, 불안, 몰입의 결여 등을 야기하여, 결국 섭식장애, 우울 및 성기능장애와 같은 심리적인 문제들을 발생시킨다(Buchanan et al., 2008; Fredrickson & Roberts, 1997). 선행연구들을 통해 대상화이론의 타당성이 검증되었으며, 한국여자대학생들에게도 적합한 이론임이 여러 연구들을 통해 입증되었다(예, 김시연, 백근영, 서영석, 2010; 선안남; 2008; 손은정, 2007).

한편, 최근 들어 대상화이론을 토대로 수행된 연구들이 표집이 용이한 집단(예, 여자대학생)으로 연구대상이 한정되어 있으며, 종속변인 또한 부정적 섭식행동에만 집중되어 대상화이론 및 관련 연구결과의 일반화 가능도가 떨어진다는 비판들이 제기되었고, 이러한 비판을 토대로 다양한 집단 및 변인을 고려한 연구들이 증가하고 있다(예, Fredrickson & Harrison, 2005; Grabe & Hyde, 2009; Lindberg, Hyde &, McKinley, 2006; Lindberg, Grabe & Hyde, 2007; Slater & Tiggermann, 2010). 이 중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대상화된 신체의식 척도(Objectified Body Consciousness Scale: OBCS)를 청소년을 대상으로 개발하고 타당화하거나(예, 구자연, 2010; Lindberg, Hyde &, McKinley, 2006), 대상화이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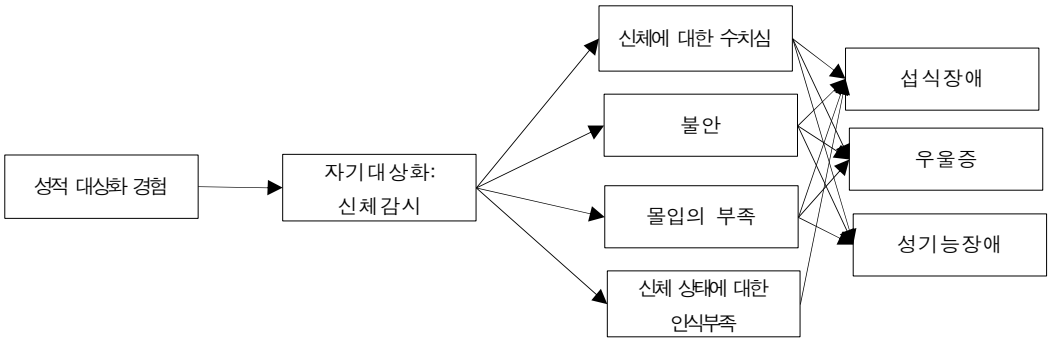

그림 1. 대상화 이론 모형(Fredrickson & Roberts, 1997)

www.kci.go.kr

이 청소년에게도 적용가능한지를 살펴본 연구들(예, Fredrickson & Harrison, 2005; Slater & Tiggermann, 2010)이 수행되었다. 또한 우울, 불안, 몰입, 학업성취 및 성경험(sexual experience) 등 섭식행동 이외의 다양한 변인들을 고려한 연구들도 수행되었는데, Grabe와 Hyde(2009)는 여자청소년을 대상으로 음악방송프로그램인 MTV와 뮤직비디오에 노출된 경험이 심리건강 및 다이어트, 수학자신감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였다. 연구 결과, 음악방송 노출정도는 신체감시를 매개로 신체존중감, 다이어트, 우울, 불안 및 수학자신감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이어트, 불안, 수학자신감에는 직접적인 부적 효과 또한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Impett, Schooler와 Tolman(2006)의 연구에서는 자기대상화가 성적 자기효능감을 매개하여 성경험 및 성경험 시 자기보호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듯 외국에서는 연구대상을 확대하거나 새로운 변인들을 포함시키는 등 대상화이론의 적용가능성 및 설명력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시도들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대중매체나 대인관계에서의 성적대상화경험이 청소년의 정신건강 등 다양한 변인들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려는 연구들이 수행되고 있지 않은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여자청소년을 대상으로 대상화이론의 적용가능성을 검증하는 한편, 대중매체를 통한 성적대상화경험이 부정적인 섭식행동 뿐 아니라 학습몰입 및 수행불안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고자 하였다.

청소년을 대상으로 연구를 수행하는 것은 대상화이론의 적용대상을 확장시킨다는 의미뿐만 아니라 기존 연구들의 제한점들을 보완한다는 점에서도 의의를 지닌다. 선행연구들은 크게 세 가지 방법으로 성적대상화 경험을 구인하고 있는데, 이러한 방법의 특징 및 한계점은 다음과 같다. 첫 번째 방법은 실험설계를 통해 연구대상자를 직접 성적대상화 경험에 노출시키는 것이다. 예를 들어, Harper와 Tiggemann(2008)의 연구에서는 마른 여성이 등장하는 광고, 마른 여성과 매력적인 남성이 함께 등장하는 광고, 사람이 등장하지 않는 광고를 보여준 후 자기대상화 및 신체만족도를 평정하게 하였다. 이러한 방법은 성적대상화 경험이 부정적인 결과에 미치는 영향을 보다 분명하게 규명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지만, 성적대상화 경험이 내면화되어 신체감시 및 신체수치심으로 이어지는 심리적 과정을 검증할 수 없다는 단점이 있다. 또한 실험참가자를 성적 대상화경험에 노출시키는 윤리적인 문제가 발생한다(Augustus-Horvath & Tylka, 2009). 다음으로, 연구대상자에게 과거에 발생한 성적대상화 경험을 묻고 자기보고식 설문지에 평정하게 하는 방법이 있다. 예를 들어, 'The Interpersonal Sexual Objectification Scale(ISOS)'이나 'Cultural Sexual Objectification Scale(CSOS)' 등은 과거 대인관계에서 지각한 성적대상화 경험을 측정한다. 그러나 이러한 도구를 사용할 경우, 과거에 발생한 성적대상화 경험을 상기시켜야 하기 때문에 측정결과가 개인의 성적대상화 경험을 정확하게 반영한다고 보기 어렵다(Augustus-Horvath & Tylka, 2009). 마지막으로, 성적대상화 경험을 직접적으로 측정하지 않고 이러한 경험들로 인해 발생할 것으로 가정되는 내면화 및 신체감시를 측정하여 연구를 수행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대상화연구에서 가장 빈번하게 사용되는 'Objectified Body Consciousness Scale(OBCS)'은 자기대상화 수준을 신체감시의 정도로 측정하고

www.kci.go.kr

있는데, 많은 연구에서 이 도구를 사용하여 성적대상화 경험을 측정하지 않고 신체감시 이후의 과정부터 모형을 구성하여 대상화이론을 검증하고 있다. 그러나 성적대상화 경험을 연구에 포함시키지 않을 경우, 성적대상화 경험이 다른 변인들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확인할 수 없다는 한계를 지닌다. 본 연구에서 여자청소년을 대상으로 성적대상화 경험을 음악방송 노출로 정의하고 관련 변인들과의 관련성을 살펴보는 것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선행연구들의 한계를 보완한다고 볼 수 있다. 우선, 청소년을 대상으로 현재 대중매체에 노출되고 있는 정도를 측정하기 때문에, 인위적으로 연구대상자를 성적대상화 환경에 노출시키지 않고도 자연스럽게 대중매체를 통한 성적대상화 경험을 파악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둘째, 청소년의 경우 과거의 경험을 회상할 필요 없이 현재 경험을 성적대상화 경험으로 측정하는 것이 적절하므로 비교적 정확하게 대중매체 노출로 인한 성적대상화 경험을 측정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청소년의 발달특성상 가치관 및 성격 특성이 형성되는 시기이므로, 대중매체 노출을 통한 성적대상화 경험이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가치를 내면화하는 과정에 영향을 미치고 결국 심리적 어려움에 영향을 미치는 인과적 모형을 설정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볼 수 있다. 즉, 과거의 성적대상화경험을 회상하거나 실험을 통해 성적대상화경험에 노출시키는 성인 대상 연구와는 달리, 청소년을 대상으로 연구를 수행하게 되면 현재 경험하고 있는 성적대상화와 내면화 과정, 그리고 이로 인해 발생하는 심리적 어려움 간의 인과적 관련성에 대한 보다 설득력 있는 주장을 제시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앞서 언급했듯이, 대상화이론에서는 여성을 성적으로 대상화하는 대중매체에 노출됨으로써 다양한 심리적 문제가 발생한다고 가정한다. 대중매체 중 TV를 통한 뮤직비디오 등 음악 관련 방송은 여성을 가장 성적으로 대상화하는 매체라고 할 수 있다(Emerson, 2002; Grabe & Hyde, 2009). 실제로 뮤직비디오에 등장하는 여성들은 노출이 심한 의상이나 성적인 몸짓으로 남성의 이목을 끄는 역할을 담당하거나(Andsager & Roe, 2003; Gow, 1996), 상대적으로 비중이 낮은 역할을 차지하고 전통적인 성역할에 충실한 모습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Ward, 2002; Ward, Hansbrough, & Walker, 2005). 예를 들어, Andsager와 Roe(2003)는 20년 간 발표된 뮤직비디오를 분석한 결과, 전체 뮤직비디오의 90%이상이 여성을 성적으로 대상화하고 있으며, 여성들은 주로 매춘부, 나이트클럽 댄서, 하녀 등 한정된 직업으로 등장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훈순(2001)의 연구에서도 여성은 성적 대상이거나 수동적이고 지배를 당하는 인물로 묘사되는 반면, 남성은 능동적이고 능력을 갖춘 대상으로 묘사되어 뮤직비디오가 남녀를 차별하고 전통적인 성역할태도를 강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여성의 외모를 강조하고 수동적인 모습으로 묘사하는 뮤직비디오에 자주 노출된다면, 그만큼 여성을 성적으로 대상화하는 가치를 내면화할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가정할 수 있다. 더욱이 가치관이 형성되기 이전의 청소년들의 경우 보다 쉽게 이러한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대중매체를 통한 성적대상화경험을 뮤직비디오를 포함한 음악방송에 노출된 것으로 정의하고, 음악방송에 자주 노출될수록 성적대상화 경험을 더 많이 하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한편, 대상화 관련 선행연구들(김시연 등,

www.kci.go.kr

2009; Daniel & Bridges, 2010)에서는 성적대상화 경험을 내면화하는 과정을 모형에 포함시켜야 하는 이유 및 필요성을 언급하면서 실제로 내면화 변인의 영향력을 경험적으로 검증하였다. 그 결과, 신체감시나 신체수치심에 비해 내면화 변인이 심리적인 어려움을 더 많이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대상인 여자청소년들의 경우 가치관이 아직 확립되지 못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대중매체를 통해 전달되는 여성의 외모 및 성역할에 대한 사회문화적 가치를 내면화할 가능성이 그만큼 높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에서 성적 대상화 경험이 내면화 과정을 통해 심리적 결과에 미치는 영향을 탐색한 경우는 전무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내면화과정을 변인으로 설정하고, 음악방송에 노출된 경험이 내면화 과정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가정하였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대상화 관련 경험들이 부정적인 섭식행동 뿐만 아니라 학습몰입 및 수행불안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고자 하였다. 대상화 이론에서 가정하는 것과는 달리 영역특수적인 수행불안과 학습몰입을 변인으로 채택한 근거는 다음과 같다. 사회비교이론(HeinBerg, Thompson, & Stormer, 1995)에 따르면 사람들은 대중매체가 제시하는 이상적인 외모를 자신의 외모와 비교하는 경향이 있는데, 특히 외모 및 신체특성에 민감한 청소년들의 경우 이러한 비교가 사회적 행동 및 심리적 건강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매우 높다. 선행 연구에서도 사회비교는 수행불안, 마르고 싶은 욕구 및 섭식태도와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Gilbert & Meyer, 2003), 여자청소년의 사회비교 성향은 대인불안 및 수행불안을 유의미하게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백주현, 2008). 이러한 사회비교이론 및 선행연구들을 고려한다면, 여자청소년들이 음악방송 노출 등의 성적대상화 경험을 통해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가치를 내면화하게 되면, 대중매체가 제시하는 외모와 자신의 외모를 습관적으로 비교 감시하게 되어 결국 수행불안에 취약할 것이라고 예상해볼 수 있다. 또한 성적대상화 경험과 학습몰입의 관계를 직접적으로 언급하거나 검증한 이론 및 연구들은 존재하지 않지만, 성적대상화 경험이 신체감시를 유도하여 결국 몰입을 방해한다는 대상화이론을 바탕으로 대상화 관련 변인들과 학습몰입의 관련성을 간접적으로 추론해 볼 수 있다. 즉, 여자청소년들이 여성을 성적으로 대상화는 음악방송에 노출될수록 대중매체가 제시하는 이상적인 외모를 자신의 것으로 내면화하고 이를 토대로 자신의 외모를 감시하고 비교 평가하게 된다면, 외모에 대한 관심은 증가하는 반면 학습에 대한 몰입도는 감소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즉, 성적대상화 경험으로 인해 자신의 외모에 지나치게 몰두하게 되면 그만큼 학습에 대한 몰입은 힘들어질 것으로 가정할 수 있다. 몰입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활동 및 작업에 의식의 초점을 맞춰야 하는데(Csikzentmihalyi, 1990), 외모에 신경 쓰고 지나치게 이를 의식할 경우 학습과 관련 없는 정보들을 머릿속에 표상하기 때문에 학습에 대한 몰입은 감소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여자청소년의 음악방송 노출을 통한 성적대상화 경험이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가치의 내면화과정 및 신체감시를 통해 수행불안 및 학습몰입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가정하였다.

종합하면, 본 연구에서는 여자청소년의 음악방송 노출경험이 내면화 과정을 통해 신체

www.kci.go.kr

감시 및 신체수치심에 영향을 주게 되어, 결국 부정적인 섭식행동과 학습몰입 및 수행불안에 영향을 미치는 인과적 구조모형을 설정하고 이의 적합도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본 연구에서는 Fredrickson과 Roberts (1997)가 제안했던 초기 대상화이론과는 달리, 수행불안과 학습몰입을 부정적 섭식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매개변인이 아닌 종속변인으로 설정하였다. 지난 10년 간 출판된 대상화 관련 논문들을 분석한 Moradi와 Huang(2008)에 따르면, 신체수치심이 섭식장애에 미치는 영향은 충분히 입증되었으나 몰입이 섭식장애에 미치는 영향은 지지되지 않았고, 불안이 섭식장애에 미치는 영향 또한 제한적이거나 상반된 결과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2 참조). 비록 Moradi와 Huang이 분석한 선행연구들에서 학습몰입과 수행불안 등을 연구변인으로 채택하여 변수 간 관련성을 검증한 것은 아니지만, 본 연구에서는 학습몰입을 몰입의 영역특수적인 변인으로 그리고 수행불안을 불안의 영역특수적인 변인으로 가정하여 매개변인이 아닌 종속변인으로 설정하였다. 한편, Grabe와 Hyde(2009)의 연구에서는 음악방송 시청이 섭식관련 행동과 불안 및 수학자신감에 직접적으로 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음악방송노출과 부정적인 섭식행동 및 학습몰입, 수행불안 간 직접경로를 포함한 모형을 경쟁모형으로 채택하고 가설모형과 적합도를 비교하였다. 본 연구에서 설정한 가설모형과 경쟁모형은 그림 3과 같으며, 구체적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대상화이론을 토대로 구성한 본 연구의 가설 모형은 우리나라 여자청소년에게 적용가능한가? 둘째, 음악방송 노출경험은 내면화, 신체감시 및 신체수치심을 매개로 부정적 섭식행동, 학습몰입 및 수행불안 등에 영향을 미치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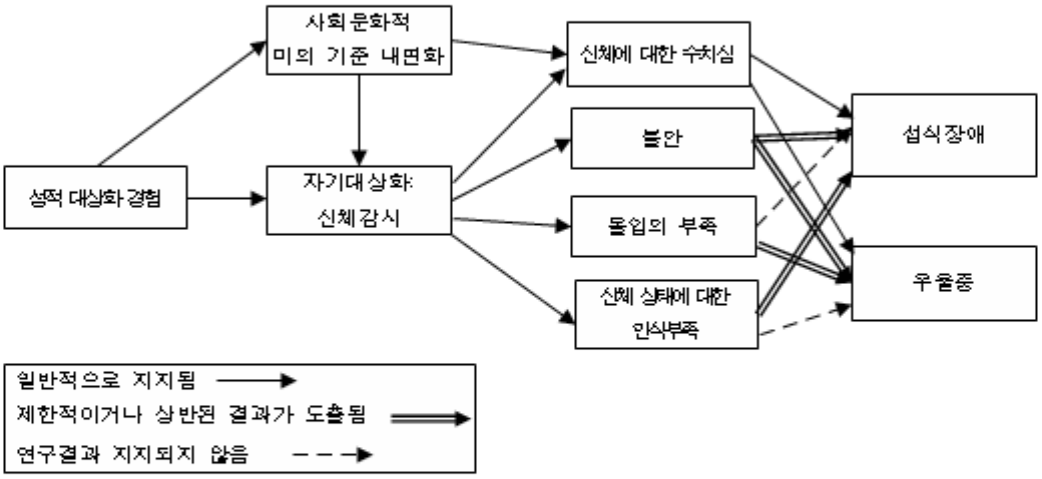

그림 2. 10년 간(1997-2007) 대상화이론 변인 간 관계 개관

www.kci.g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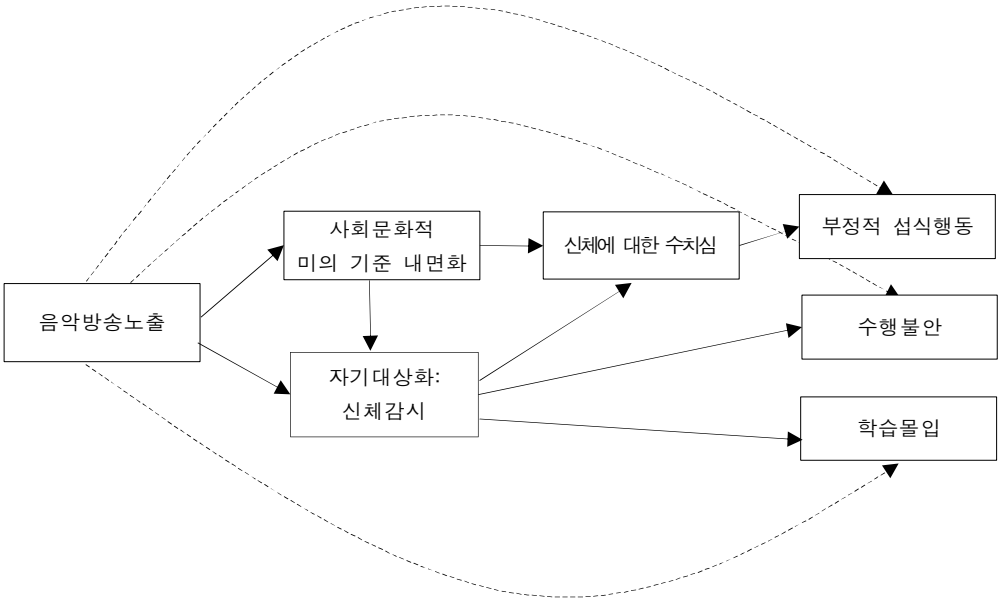

그림 3. 가설모형(실선부분)과 경쟁모형(점선부분 포함)

연구방법

연구 대상 및 절차

자료 수집을 위해 서울 소재 대학 및 대학원에서 전공수업을 수강하고 있는 4명의 교생실습생 및 8명의 현직교사를 대상으로 설문지를 배분하고 각자 수업을 맡은 중·고등학교 학생들에게 설문지를 나눠주어 완성하도록 하였다. 총 345부(중학교 15부, 고등학교 330부)의 설문지가 배부되어 319부(중학교 14부, 고등학교 315부)의 설문지가 수거되었다. 연구에 참여한 여자중학생들의 수가 고등학생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작기 때문에 추후 자료 분석에서 제외하였고, 불성실하게 응답했거나 기재사항을 누락한 여자고등학생 23부를 제외한 282명의 설문지를 최종 자료 분석에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 참여한 여자고등학생들의 평균 연령은 15.8세(*SD* = .97)였으며, 1학년은 177명(62.8%), 2학년은 43명(15.2%), 3학년은 62명(22%)으로 나타났다.

몸무게 및 신장을 확인한 결과, 여자고등학생들의 키는 147cm-174cm, 평균 161.32cm(*SD* = 4.87)이었으며, 몸무게는 37kg-76kg, 평균 52.23(*SD* = 7.08)로 나타났다. 신체질량지수(Body Mass Index: BMI)를 살펴본 결과, 평균 20.21(*SD* = 3.47)로 나타나 연구대상은 평균적으로 정상체중범위에 속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0대 여성의 경우 BMI가 17.27미만은 저체중, 17.27-23.89는 정상체중, 23.89-25.00은 과체중, 25이상은 비만으로 간주한다(질병관리본부, 대한 소아과학회, 소아 청소년 신체 발육 표준치 제정위원회, 2007). 연구대상자의 27.5%는 BMI 18.5 미만의 저체중 집단, 65.5%는 BMI 18.5 - 24.9 사이에 해당하는 정상체중 집단, 7%는 BMI 25이상의 과체중집단으로 나타났다.

www.kci.go.kr

측정 도구

음악방송 노출

본 연구에서는 음악방송에 노출된 정도를 측정하기 위해 Grabe와 Hyde(2009)의 '음악방송 노출 척도'(Music Television Use: MTU)와 오상화와 나은영(2002)의 '전체 관련매체 노출 척도'를 수정 및 보완하여 사용하였다. MTU는 음악방송 채널인 MTV, BET 및 뮤직비디오에 노출된 정도를 질문하는 총 3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음악관련 방송을 얼마나 자주 시청하는지에 대해 5점 척도로 평정한다(1점 = *결코 시청하지 않는다*, 5점 = *매일 시청한다*). 그러나 이 척도는 우연히 음악 관련 방송이나 뮤직비디오에 노출된 정도인 우연노출과 음악방송에 대한 관심정도를 고려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실제 음악방송에 얼마나 노출되었는지를 정확히 측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우연노출과 선택노출의 두 가지 하위척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노출빈도와 관심도를 모두 반영하고 있는 '전체 관련매체 노출 척도'를 참고하여 MTU를 보완한 '음악방송 노출 척도'를 제작하였다. 본 연구자들이 제작한 '음악방송 노출 척도'는 우연히 음악관련 방송을 보게 되는 우연노출과 음악관련 방송을 습관적으로 선택해서 시청하는 선택노출 등 두 가지 하위척도, 총 15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우연노출은 5점 척도로 평정하고(1점 = *거의 시청하지 않는다*, 5점 = *거의 매일 시청한다*), 문항의 예로는, "얼마나 자주 우연한 기회에 뮤직비디오 및 음악프로그램 동영상을 시청하게 되십니까?" 등이 있다. 선택노출을 측정하기 위한 문항을 개발하기 위해 본 연구자들은 공중파 및 케이블 채널을 통해 방송되고 있는 모든 음악프로그램을 대상으로 예비 설문지를 구성하고 34명의 여고생을 대상으로 예비조사를 실시하였다. 예비조사 결과, 노출의 빈도 및 관심도가 낮은 프로그램을 제외한 최종 7개의 프로그램을 대상으로 노출빈도(1점 = *전혀 시청하지 않는다* 5점 = *매우 자주 시청한다*)와 관심도(1점 = *전혀 관심이 없다*, 5점 = *매우 관심이 있다*)를 각각 5점 척도로 평정하도록 설문지를 구성하였다. 이러한 노출빈도 점수와 관심도 점수를 곱한 값을 선택노출의 수준으로 정의하고 점수가 높을수록 음악방송에 선택적으로 더 많이 노출된 것으로 보았다.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3개의 요인으로 구성된 해법이 가장 안정적인 것으로 나타나, 요인 1을 음악방송의 우연노출, 요인 2를 공중파 음악방송의 선택적 노출, 요인 3을 비공중파 음악방송의 선택적 노출로 명명하였다. 이러한 3개의 요인은 전체 음악방송 노출의 81.9%를 설명하고 있었으며, 요인부하량의 범위는 .63-.84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의 전체 문항에 대한 내적일치도(Cronbach's alpha)는 .85로 나타났으며, 단일문항인 우연노출 척도를 제외한 각 하위척도의 내적일치도는 각각 .90과 .83으로 나타났다.

외모에 대한 사회 문화적 기준의 내면화

외모에 대한 사회 문화적 기준의 내면화 정도를 측정하기 위해 HeinBerg, Thompson과 Stormer(1995)가 개발한 '외모에 대한 사회 문화적 기준' 척도(Sociocultural Attitudes towards Appearance Questionnaire: SATAQ)를 Smolak, Levine과 Thompsom(2001)이 남녀 청소년을 대상으로 수정하고 타당화한 것을 조영미(2005)가 수정·번안한 척도 중 '내면화(internalization) 척도'를 사용하였다. SATAQ는 인식(awareness)과 내면화 두 가지 하위척도로 구성되며, 이

www.kci.go.kr

중 '내면화 척도'는 미디어를 매개로 개인이 외모에 대한 사회 문화적 기준을 받아들이고 자신의 가치로 수용하는 정도를 측정하는 6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문항의 예로는 '나는 잡지와 TV에 나오는 사람들과 내 몸을 비교해보는 경향이 있다.' 등이 있으며, 5점 척도로 평정한다(1점 = *전혀 그렇지 않다*, 5점 = *매우 그렇다*). 점수가 높을수록 외모에 대해 사회가 부과한 기준을 자신의 기준으로 내면화하는 경향이 큰 것을 의미한다. 남녀청소년 550명을 대상으로 SATAQ를 타당화한 Smolak, Levine과 Thompsom(2001)의 연구에서 SATAQ 청소년용은 전체 '신체존중감 척도'(The Body Esteem Scale: BES, Mendelson & White, 1993) 및 '신체존중감 척도'의 하위척도인 BES- BODY와 상관이 높게 나타나 공인타당도가 입증되었다. 이 연구에서 전체 문항에 대한 내적일치도는 .88로 나타났으며, 조영미의 연구에서는 .86, 본 연구에서는 .87로 나타났다.

신체감시

신체감시를 측정하기 위해 Lindberg, Hyde와 McKinley(2006)가 개발한 '대상화된 신체의식 척도'(The Objectified Body Consciousness Scales for Youth: OBC-Y)를 구자연(2010)이 번안하고 타당화한 '한국판 청소년용 대상화된 신체의식 척도'(K-OBC-Y)의 하위 영역인 '신체 감시(Body Surveillance)'를 사용하였다. 구자연의 연구에서 중·고등학교 남녀학생 754명을 대상으로 타당화한 결과 원척도와 같이 신체감시와 신체수치심 2개 요인이 추출되었으며,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태도 척도', '공적 자기의식 척도', '신체존중감 척도'와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공인타당도가 입증되었다. K-OBC-Y 중 신체감시를 측정하는 문항은 4개로 구성되어 있으며, 7점 척도로 평정한다(1점 = *전혀 그렇지 않다*, 7점 = *매우 그렇다*). 문항의 예로는, '나는 내가 입고 있는 옷이 나를 돋보이게 하는지 신경을 쓴다.' 등이 있다. 점수가 높을수록 자신의 신체를 감시하는 경향이 높음을 의미한다. 구자연의 연구에서 K-OBC-Y 전체 척도의 내적일치도는 .86으로 나타났으며, 신체감시의 내적일치도는 .86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K-OBC-Y 전체 문항에 대한 내적일치도는 .75, 신체감시는 .80으로 나타났다.

신체수치심

본 연구에서는 신체 수치심을 측정하기 위해 Lindberg, Hyde와 McKinley(2006)가 개발한 '대상화된 신체의식 척도'(The Objectified Body Consciousness Scales for Youth: OBC-Y)를 구자연(2010)이 번안하고 타당화한 '한국판 청소년용 대상화된 신체의식 척도'(K-OBC-Y)의 하위 영역인 '신체수치심(Body Shame)'을 사용하였다. '신체수치심 척도'는 총 5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7점 척도로 평정한다(1점 = *전혀 그렇지 않다*, 7점 = *매우 그렇다*). 문항의 예로는, '나는 사람들이 내 실제 몸무게가 얼마인지 알게 되면 창피할 것 같다' 등이 있다. 점수가 높을수록 자신의 신체에 대한 수치심이 높음을 의미한다. 구자연의 연구에서 '신체수치심 척도'의 내적일치도는 .77로 나타났고, 본 연구에서는 .72로 나타났다.

부정적 섭식행동

부정적인 섭식행동을 측정하기 위해 Garner와 Garfinkel(1980)의 '섭식태도 척도'(EAT-26)를 이민규, 고영택, 이혜경, 황을지, 이영호(2001)가 번안하고 타당화한 '한국판 식사태도검사

www.kci.go.kr

-26'(The Korean Version of Eating Attitude-26: KEAT-26)을 사용하였다. KEAT-26은 총 26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절식, 폭식/음식에 대한 몰두, 섭식 통제 등 3가지 하위척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6점 척도로 평정한다(0점 = *전혀 아니다*, 5점 = *항상 그렇다*). 문항의 예로는, '자신이 멈출 수 없다고 느낄 때까지 계속 진탕 먹어댄다.'등이 있다. 점수가 높을수록 부정적인 섭식태도를 더 많이 나타내고 있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전체 문항에 대한 내적일치도는 이상선과 오경자(2003)의 연구와 마찬가지로 .81로 나타났으며, 하위척도의 내적일치도는 절식 .78, 폭식/음식에 대한 몰두 .82, 섭식통제 .78로 나타났다.

수행불안

본 연구에서는 수행불안을 측정하기 위해 Beidel, Turner와 Morris(1995)의 '아동용 사회공포증 및 불안 척도'와 LaGreca와 Stone(1993)의 '개정판 아동용 사회불안 척도'를 오경자와 문혜신(2002)이 번안하고 타당화한 '한국판 아동청소년용 사회불안 척도'(Social Phobia and Anxiety Inventory for Children: SPAI-C)의 하위요인인 '수행불안'을 사용하였다. 오경자와 문혜신의 연구에서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SPAI-C의 신뢰도 및 타당도를 확인한 결과, 수행 불안,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 회피 행동 및 사고, 낯선 것에 대한 두려움, 비주장성 등의 5개 하위 요인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각 하위요인의 내적일치도 계수는 .79-.92, 전체문항의 내적일치도 계수는 .95였다. 이 척도는 기타 불안 장애에 비해 사회불안에 특히 민감한 변별 타당도를 지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아동용 우울 척도'(Children's Depression Inventory: CDI), '스펜스 아동용 불안 장애 척도'(Spense Children's Anxiety Scale: SCAS), '자기지각 유능감 척도' 및 '사회적 위험에 관한 자동적 사고 척도'와 유의한 상관이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나 공인타당도가 입증되었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수행불안은 9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5점 척도로 평정한다(0점 = *전혀 아니다*, 4점 = *매우 그렇다*). 문항의 예로는, '나는 수업시간에 선생님이 질문하면 너무 긴장해서 대답을 잘 하지 못한다.' 등이 있으며, 문항 총점이 클수록 학업과 관련된 수행 상황에서 불안을 자주 경험하는 것을 의미한다. 오경자와 문혜신의 연구에서 수행불안의 내적일치도는 .87로 나타났으며, 본 연구에서는 .91로 나타났다.

학습몰입

학습몰입을 측정하기 위해 석임복과 강의철(2007)이 몰입과 관련된 문헌연구와 국내외 몰입척도 문항들(Jackson & Marsh, 1996; 이기택, 2001: 이미현, 2003; 이은경, 2005; 김나현, 2006; 이지혜, 2010 재인용)을 토대로 제작한 '학습몰입 척도'를 이지혜가 고등학생에 적합하도록 수정 및 보완한 것을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인지적 몰입 16문항과 정의적 몰입 19문항 등 2가지 하위척도 총 35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5점 척도로 평정한다(0점 = *전혀 아니다*, 4점 = *매우 그렇다*). 문항의 예로는, '나는 공부에 열중하면 시간가는 줄 모를 때가 있다.' 등이 있으며, 문항 총점이 클수록 학습에 몰입하는 정도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이지혜의 연구에서 전체 학습몰입의 내적일치도는 .89로 나타났으며, 인지적 몰입은 .87, 정의적 몰입은 .89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전체 학습몰입의 내적일치도는 .93, 인지적 몰입은 .90, 정의적 몰입은 .92로 나타났다.

www.kci.go.kr

자료 분석

여자고등학생의 성적대상화 경험,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기준의 내면화, 신체감시, 신체수치심, 부정적 섭식행동, 학습몰입 및 수행불안 간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AMOS 18.0을 사용하여 모형의 적합도를 확인하였다. 최대우도법을 사용하여 모수치를 추정하였고, 모형의 적합도를 판단하게 위해 χ^2검증 및 RMSEA, TLI, CFI 지수를 살펴보았다. 이 때, 자료가 정규분포 가정을 충족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각 변수의 왜도와 첨도의 절대값이 2와 7을 넘지 않는지 확인하였다(Lei & Lomax, 2005).

한편, 본 연구에서는 Russell, Kahn, Spoth와 Altmaier(1998)의 제안에 따라, 단일요인으로 이루어진 외모에 대한 사회 문화적 기준의 내면화, 신체수치심 및 수행불안에 대해 꾸러미를 제작하였다. 모든 문항을 사용하여 잠재변수를 구인할 경우 추정모수의 수가 증가하여 다변량 정규분포 가정을 위반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전체 문항의 합 또는 평균으로 잠재변수를 구인할 경우 한 개의 측정치로 잠재변수를 구인해야 하기 때문에 왜곡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따라서 추정할 모수의 수를 줄이면서 동시에 잠재변수 추정이 왜곡될 가능성을 줄이기 위한 방법으로써 Russell 등(1998)이 제안한 항목 묶기 방법을 채택하였다. 항목 묶기를 하기 위해서는 꾸러미에 사용될 측정 구성개념에 관련된 모든 개별항목이 단일차원성을 지니고 있다는 것이 전제되어야 한다(Bandalos & Finney, 2001; Cattell, 1956; Hall et al., 1999; Little, Cunningham, Shahar, & Widaman, 2002 재인용). 따라서 Yuan, Bentler와 Kano(1997)는 항목 묶기를 실시하기 전 탐색적 요인분석을 할 것을 제안하고 있는데, 이에 따라 사회 문화적 기준의 내면화, 신체수치심 및 수행불안에 대해 최대우도법을 사용하여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신체수치심은 2요인 구조로 나타났으며, 사회 문화적 기준의 내면화와 수행불안은 1요인만 추출되어 단일차원성이 확인되었다. 이러한 결과에 따라 신체수치심은 탐색적 요인분석에 따른 2요인으로 나누었으며, 사회 문화적 기준의 내면화와 수행불안에 대해 각각 세 개의 꾸러미를 제작하였다. 항목 묶기를 하기 위해 요인부하량의 절대값에 따라 각 문항별 순위를 매긴 후 가장 큰 부하량을 지닌 문항과 가장 작은 부하량을 지닌 문항을 짝으로 묶어 순서대로 세 꾸러미에 연속적으로 할당하였다. 또한 매개효과의 유의도를 확인하기 위해 부트스트랩 절차를 실시하였다. 부트스트랩 절차는 Shrout와 Bolger(2002)가 제안한 방법으로서, 모수의 분포를 알지 못할 때 모수의 경험적 분포를 생성시키는 방법이다. 본 연구에서는 1,000개의 표본을 원자료(N = 282)로부터 생성하여 신뢰구간 90%에서 간접효과의 유의도를 검증하였다.

한편, BMI지수가 연구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Moradi와 Rottenstein(2007)의 견해에 따라, BMI와 측정변인 간 상관을 확인한 결과, 신체감시(r = - .181, p < .001)와의 상관이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BMI를 공변인으로 채택하여, 신체감시에 대해 직접경로를 설정하고 그 영향을 통제하였다.

결 과

www.kci.go.kr

기술통계 분석

구조모형 검증에 앞서 측정변인 간 상관계수와 각 변인의 왜도 및 첨도를 구하고 이를 표 1에 제시하였다. 대체적으로 측정변인 간에는 유의한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종속변인들 간의 상관은 대체적으로 높지 않았다. 또한 측정변인 간 상관이 모두 .50 이하로 나타나 다중공선성의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판단되었다. 음악방송노출은 내면화, 신체감시, 신체수치심 및 부정적 섭식행동과는 정적상관을 나타냈으며 학습몰입과는 부적 상관을 나타냈다. 즉, 음악방송 노출 수준이 높을수록 내면화, 신체감시, 신체수치심 및 부정적 섭식행동의 수준은 높은 것으로 나타난 반면, 학습몰입의 수준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측정모형 검증

구조모형 검증에 앞서, 측정변인들이 음악방송 노출,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기준의 내면화, 신체감시, 신체 수치심, 부정적인 섭식행동, 수행불안 및 학습몰입 등 7개의 잠재변인을 타당하게 구인하고 있는지를 확인하였다. 우선, 모든 변인들의 왜도 및 첨도를 확인한 결과 절대값이 각각 2와 7을 넘지 않아 정상분포 가정을 충족하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7개 잠재변인들 간 상관을 설정한 후 최대우도법을 적용한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측정모형은 자료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chi^2(168, N = 282) = 364.427$, $p < .001$; CFI = .93; TLI = .91, RMSEA = .065(90% 신뢰구간 = .055-.074). 또한 측정변인들이 잠재변인에 .51-.94까지 적재된 것으로 나타났고, 모두 $p < .00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구조모형 검증

본 연구에서 설정한 가설모형의 적합도를 검증한 결과, 가설모형은 자료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chi^2(181, N = 282) = 425.504$, p

표 1. 측정변인 간 상관, 평균 및 표준편차

	1	2	3	4	5	6	7	*M (SD)*	왜도	첨도
1. 음악방송노출	-	.224**	.325**	.339**	.235**	.103	-.378**	40.12(27.33)	1.04	.94
2. 내면화		-	.425**	.439**	.333**	.073	-.054	20.53(6.22)	.66	2.14
3. 신체감시			-	.454**	.297**	.156**	-.219**	13.92(3.17)	-.32	.15
4. 신체수치심				-	.456**	.219**	-.071	13.23(3.99)	.15	.01
5. 섭식행동					-	.087	-.053	62.74(15.11)	.53	1.41
6. 수행불안						-	-.196**	21.16(7.80)	.62	.20
7. 학습몰입							-	101.22(22.29)	.14	.91

주. $N = 282$. 음악방송노출 = 음악방송 노출을 통한 성적 대상화 경험, 내면화 =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기준의 내면화, 신체감시 = 신체에 대한 감시, 섭식행동 = 부정적 섭식행동.

** $p < .01$.

www.kci.g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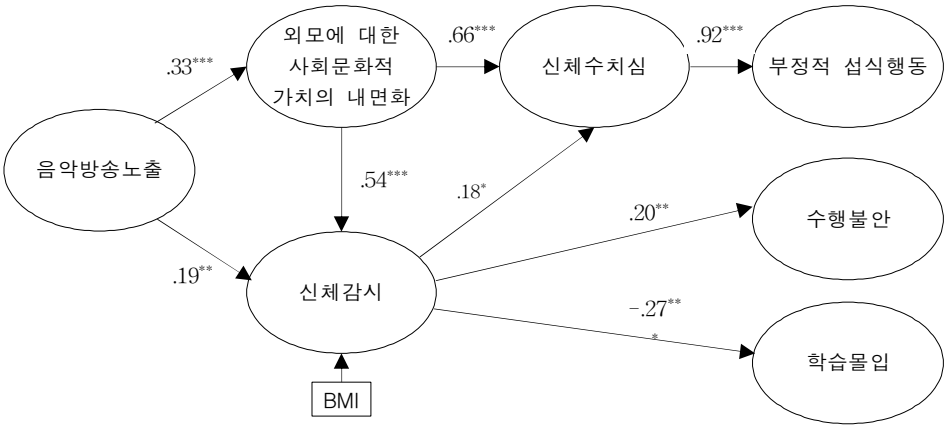

그림 4. 가설모형의 경로계수

경로계수는 표준화 계수임. * $p < .05$. ** $p < .01$. *** $p <$ .001.

< .001; CFI = .91; TLI = .90, RMSEA = .069(90% 신뢰구간 = .061-.078). 가설모형은 부정적 섭식행동 변량의 85%, 수행불안 변량의 8%, 학습몰입 변량의 5%를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그림 4에서 볼 수 있듯이 모든 경로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Grabe와 Hyde(2009)의 연구를 토대로 음악방송 노출이 부정적 섭식행동, 학습몰입 및 수행불안에 미치는 직접경로를 포함한 모형을 경쟁모형으로 채택하여 적합도 및 경로계수를 살펴보았다. 연구결과, 경쟁모형은 양호한 적합도를 지닌 것으로 나타났다, χ^2 (178, N = 282) = 425.296, p < .001; CFI = .91; TLI = .90, RMSEA = .070(90% 신뢰구간 = .061-.079). 가설모형과 경쟁모형이 적합도에서 차이가 있는지 χ^2차이검증을 통해 살펴본 결과, 그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Delta\chi^2$(3, N = 282) = 0.208, p < .05. 이는 직접경로들이 추가된 경쟁모형이 가설모형에 비해 간명성이 떨어질 뿐 아니라 적합도가 좋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음악방송과 부정적 섭식행동, 학습몰입 및 수행불안 간 직접경로를 포함하지 않은 가설모형을 최종모형으로 채택하였다.

매개효과 검증

본 연구에서는 부트스트랩(bootstrap) 절차를 적용하여 변인들의 매개효과를 검증하였다. 이를 위해 원자료에서 무선 표집으로 생성된 1,000개의 자료 표본이 모수 추정에 사용되었으며, 90%신뢰구간을 설정하였다. 표 2에 제시된 것처럼, 음악방송노출을 통한 성적 대상화 경험은 모든 관련 변인들에 대해 간접효과를 지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내면화가 부정적 섭식행동, 수행불안 및 학습몰입에 미치는 간접효과 또한 모두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신체감시가 부정적 섭식행동, 수행불안 및 학습몰입에 미치는 간접효과는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결론적으로, 음악방송 노출을 통한 성적 대상화 경험은 사

www.kci.go.kr

표 2. 연구변인의 총효과, 직접효과, 간접효과 검증결과

경로	총효과	직접효과	간접효과
음악방송 노출 → 내면화	.330**	.330**	-
음악방송 노출 → 신체감시	.370**	.191**	.179***(.10 , .27)
음악방송 노출 → 신체수치심	.284**	-	.284**(.19 , .39)
음악방송 노출 → 부정적 섭식행동	.261**	-	.261**(.16 , .38)
음악방송 노출 → 수행불안	.076**	-	.076**(.03 , .12)
음악방송 노출 → 학습몰입	-.101**	-	-.101**(-.18 , -.05)
내면화 → 신체감시	.542**	.542**	-
내면화 → 신체수치심	.756**	.658**	.098(-.01 , .21)
내면화 → 부정적 섭식행동	.696**	-	.696***(.53 , .90)
내면화 → 수행불안	.111**	-	.111**(.05, .18)
내면화 → 학습몰입	-.149*	-	-.149*(-.23, -.08)
신체감시 → 신체수치심	.181*	.181*	-
신체감시 → 부정적 섭식행동	.166	-	.166(-.02 , .34)
신체감시 → 수행불안	.204**	-	-
신체감시 → 학습몰입	-.274**	-	-
신체수치심 → 부정적 섭식행동	.920**	.920**	-

주. $N = 282$. 효과크기는 표준화 경로계수를 토대로 산출된 것임.
* $p < .05$. ** $p < .01$. *** $p < .001$.

회문화적 가치의 내면화 과정 및 신체수치심을 매개하여 부정적 섭식행동, 수행불안 및 학습몰입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논 의

본 연구에서는 대상화이론과 선행 연구결과들을 토대로 음악방송 노출을 통한 성적 대상화경험이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기준의 내면화, 신체감시, 신체수치심을 매개로 부정적 섭식행동, 수행불안 및 학습몰입에 영향을 미치는 인과적 구조모형을 설정하고, 282명의 여자고등학생 자료를 토대로 모형의 적합도 및 변인들의 매개효과를 검증하였다. 본 연구는 여자청소년을 대상으로 선행 변인인 음악방송 노출을 통한 성적 대상화경험과 이를 내면화하는 과정을 포함했을 뿐 아니라 섭식행동 이외의 다른 심리적 어려움을 종속변인으로 함께 고려했다는 점에서 선행연구들과 차별화된다. 구체적으로, 우리나라 여자청소년들의 경우 발달단계의 특성 및 사회문화적 압력 때문에 외모에 대한 고민 뿐 아니라 학업에 대한 기대 및 압력이 존재할 것으로 가정할

www.kci.go.kr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대상화 관련 변인들이 외모에 대한 고민과 관련이 있을 것이라고 예상되는 부정적 섭식행동과 학업성취와 관련이 있을 것이라고 예상되는 학습몰입 및 수행불안 등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고자 하였다. 특히 이러한 과정을 개인의 심리 내적인 문제로 국한시키지 않고 사회문화적 가치의 내면화과정에 관심을 기울임으로써, 외모를 중시하는 한국 사회에서 여자청소년들이 이러한 가치를 내면화하게 된다는 점을 입증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결과 및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우선 가설모형은 자료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섭식행동 변량의 85%, 수행불안 변량의 8%, 학습몰입 변량의 5%를 설명하고 있었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여자고등학생들이 음악방송에 더 많이 노출될수록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가치를 더 많이 내면화하고, 자신과 타인을 비교하는 신체감시행동을 보이며, 이로 인해 자신의 신체에 대해 더 많은 수치심을 경험하게 되어 결국 부정적인 섭식행동과 수행불안 및 학습몰입의 결여를 경험하게 됨을 의미한다. 한편, 섭식행동에 대한 설명량은 대인관계에서의 성적대상화 경험을 선행변인으로 설정한 Augusutus-Horvath와 Tylka(2009)의 62.2%와 김시연 등(2010)의 68%에 비해 높게 나타났는데, 음악방송 노출을 통한 성적대상화 경험을 변인으로 설정한 것이 섭식행동에 대한 설명력을 높인 것으로 판단된다. 이는 대중매체가 여성들의 섭식행동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며, 성인여성에 비해 여자청소년들이 이러한 영향에 더 취약하다는 선행연구(예, 장희순, 김태련, 2006; Field et al., 2008)를 지지하는 것이다. 한편, 본 연구에서는 Fredrickson과 Roberts(1997)가 제안한 초기 대상화이론과는 달리, 학습몰입과 수행불안을 섭식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매개변수가 아닌 종속변수로 설정하였다. 본 연구의 가설모형이 자료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추후 대상화 관련 연구에서는 불안 및 몰입을 섭식행동과 함께 종속변인으로 채택하여 연구를 설계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여러 변인 중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가치의 내면화가 부정적인 섭식행동을 포함한 심리적인 문제들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내면화는 부정적 섭식행동과 학습몰입 및 수행불안에 미치는 총효과가 가장 컸으며 종속변인 간 관계를 매개하는 간접효과도 모두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성적대상화경험, 내면화, 신체감시, 섭식장애 간 관련성을 검증한 선행연구(김시연 등, 2010; Daniel & Bridges, 2010; Moradi & Subich, 2004)와 일치하는 것이며, 특히 내면화가 신체감시나 신체수치심에 비해 종속변인에 더 큰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연구(김시연 등, 2010; Daniel & Bridges, 2010)와도 일치한다. 예를 들어, 김시연 등의 연구에서는 일반 전공 집단과는 달리 무용 전공자들의 경우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가치의 내면화가 부정적 섭식행동을 가장 많이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일반 집단에 비해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압력을 더 많이 받는 무용 전공자들의 경우, 마른 몸을 가치 있게 여기는 사회문화적 가치를 더 많이 내면화하게 되고 이는 부정적인 섭식행동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와 유사하게 본 연구에서도 또래집단과 대중매체로부터의 사회문화적 압력에 취약할 것으로 예상되는 여자청소년들의 경우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인 가치를 내면화하는 것이

www.kci.go.kr

섭식행동, 학습몰입 및 수행불안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사회문화적 압력이 취약한 여자고등학생의 경우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가치의 내면화가 강하게 일어날 수 있고, 이는 섭식행동, 수행불안 및 학습몰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핵심적인 요소임을 시사한다.

한편, 본 연구에서는 연구참여자들의 평균 BMI가 정상집단에 해당될 뿐 아니라, 대부분의 연구참여자들이 정상체중 집단으로 분류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대상화이론 및 선행연구 결과를 토대로 설정한 본 연구모형이 정상체중으로 분류되는 집단에 타당하게 적용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또한 본 연구의 결과는 주로 BMI가 정상집단에 해당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실시된 외국의 선행연구들(Aubrey, 2006; Augustus-Horvath, & Tylka, 2009)과 유사한 것이다. 이러한 연구결과들을 종합하면, 정상체중 집단에서도 음악시청 등 성적 대상화 경험에 노출될수록 내면화 및 신체감시 등 대상화 관련 변인들을 통해 부정적인 섭식행동을 나타내고, 수행불안 및 학습몰입 저하 등의 문제에 취약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그러나 본 연구결과를 해석함에 있어서 한 가지 유의할 사항은, 실제 BMI점수와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BMI점수 간에 차이가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이다. 우리나라 여성들의 경우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신체사이즈가 외국의 기준과 상이할 가능성이 있는데, Jung과 Forbes(2007)의 연구에서는 한국여성들이 이상적이라고 생각하는 BMI수준이 저체중에 해당되는 17.93으로 나타났다. 즉, 우리나라 여성들의 경우 실제 BMI수준은 정상에 속하지만 자신을 과체중이라고 여기고 불만을 느낄 가능성이 있다. 이렇듯 한국여성들이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미의 기준을 고려한다면, 본 연구에 참여한 여자고등학생들의 BMI는 정상집단이 아닌 과체중집단으로 분류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추후 연구에서는 이상적이라고 생각하는 BMI와 실제BMI 간 차이가 연구결과에 미칠 영향을 고려하여 이를 연구 설계 시 반영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결과는 여자고등학생들이 경험하는 부정적인 섭식행동과 수행불안, 학습몰입의 결여 등을 이해하고 줄이는 데 있어서 여자고등학생, 가정, 학교 및 사회, 상담자에게 각각 다음과 같은 시사점들을 제공한다. 첫째, 음악방송 시청이 현재 경험하고 있는 섭식 및 학업 관련 문제의 원인이 될 수 있음을 여자고등학생들에게 인식시킬 필요가 있다. 즉, 여자청소년들로 하여금 음악방송을 시청함으로써 여성의 외모에 대한 편향된 가치를 내면화하고 결국 부정적인 섭식행동과 수행불안, 학습몰입의 결여 등이 초래될 수 있음을 인식하도록 도와준다면, 스스로 음악방송 시청을 조절함으로써 사전에 문제의 발단을 차단할 수 있을 뿐 아니라 현재 경험하고 있는 문제의 수준을 조절하고 관리함으로써 통제감 및 유능감을 증진시키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둘째, 본 연구결과는 여자고등학생의 부정적 섭식행동 및 학업 관련 문제들을 이해하고 개입함에 있어서 이들의 개인 내적 변인 뿐 아니라 사회문화적 맥락을 함께 고려해야 함을 시사한다. 즉, 부정적인 섭식행동이나 수행불안 및 학습몰입의 결여 등 여자청소년이 경험하는 문제들을 개인의 심리내적인 문제로만 치부하지 않고, 여성을 성적 대상으로 묘사하는 대중매체에 그 원인이 있을 수 있음을 주지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한 교

www.kci.go.kr

육과 개입이 가정이나 학교 뿐 아니라 사회 전체적으로도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Stice, Mazotti, Weibel과 Agras(2000)는 여자대학생을 대상으로 가족, 친구, 이성 및 대중매체에서 묘사하는 이상적인 미의 기준을 알아보고 이러한 기준이 미치는 영향에 대해 토론하는 3회기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실시하였다. 그 결과, 1개월 후 참여자들의 사회문화적 기준의 내면화, 신체 불만족, 부정적 정서 및 부정적 섭식행동이 유의미하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우리나라에서도 여자청소년을 대상으로 가정이나 학교에서 미디어 예방교육을 실시하거나, 비판적인 시각으로 대중매체를 평가하는 집단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실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사회적으로는 대중매체 관련 법안을 강화하여 음악방송을 포함한 대중매체에서 여성을 성적인 대상으로 묘사하는 것을 금지하는 등의 제도적 장치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 현재 실시하고 있는 청소년 연예인에 대한 보호조치나 방송심의를 통한 제재 등은 사회적 측면에서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단지 선정적이거나 유해물질이 등장하는 것뿐만 아니라 여성을 수동적이고 외모로 평가받는 대상으로 묘사하는 것에 대해서도 주의를 기울이도록 할 필요가 있다.

셋째, 본 연구를 통해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가치의 내면화가 여자고등학생들의 섭식행동 뿐 아니라 학습몰입이나 수행불안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들을 다루는 상담에서는 내면화 과정에 초점을 두고 개입할 필요가 있다. Fairburn, Marcus와 Wilson(1993)은 신체상 및 섭식과 관련된 인지왜곡이 부정적인 섭식행동을 유지하고 발현시키는 주요 변인임을 밝히면서, 인지행동적 접근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조희경과 이정윤(2010) 역시 여자청소년들의 경우 대중매체를 통한 사회문화적 가치의 내면화로 인해 섭식 관련 인지왜곡을 경험하기 때문에 섭식행동에 대한 잘못된 생각을 교정하는 등의 인지적 개입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많은 실증적 연구들 또한 섭식행동 뿐 아니라 청소년의 학교적응 향상 및 사회불안 감소에 인지행동치료가 효과적임을 일관되게 보고하고 있다(김정민, 2006, 2008; 조용래, 이경선, 황경남, 2005; Albano et al, 1995; Barrett, 1998; Flannery-Schroeder, Donovan, & Brechman-Toussaint, 2000; 김정민, 2009 재인용). 따라서 섭식장애 뿐 아니라 학업 및 수행 관련 문제를 호소하는 여자청소년들을 상담할 때, 상담자는 내담자가 외모에 대한 편향된 가치를 내면화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필요할 경우 인지재구조화를 통해 외모 관련 왜곡된 사고와 절대적이고 극단적인 신념을 수정하는 작업을 진행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여자청소년 내담자는 외부 매체로부터 전달되는 왜곡된 신체상의 수동적인 피해자가 아니라, 스스로 외모에 대한 관점들을 판단하고 평가할 수 있는 능동적인 주체로서 기능할 수 있을 것이다. 즉, 대중매체 노출이라는 불가피한 상황에서도 이의 영향을 지각하고 조절할 수 있는 유능감이 증진되고, 결국 자기인식 및 대처과정을 통해 부정적인 섭식행동이나 수행불안, 학습몰입의 결여 등이 감소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본 연구의 제한점 및 후속 연구에 대한 제언을 논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음악방송 노출 척도에 대한 타당도가 충분히 검증되지 않은 한계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들을 토대로 척도를 제작하였고 요인분석을 통해

www.kci.go.kr

요인구조가 안정적임을 확인하였으나, 보다 엄격한 절차를 통해 척도를 타당화하지 않았기 때문에 추후 연구에서는 보다 대표성 있는 표본을 사용하여 보다 엄격한 타당화과정을 거칠 필요가 있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서울에 거주하면서 대부분이 정상체중에 속하는 여자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표집하였기 때문에 연구결과를 일반화하는 데 한계가 있다. 따라서 추후 연구에서는 표집의 범위를 보다 다양한 지역으로 확대하고 대규모의 표집을 통해 다양한 체중범위에 속하는 학생들이 포함될 수 있도록 하여 모형을 재검증해 볼 필요가 있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BMI를 공변인으로 채택하여 매개변인 및 종속변인에 미치는 영향을 통제하였는데, BMI가 연구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Moradi와 Rottenstein (2007)의 견해를 반영하여 추후 연구에서는 BMI에 따라 연구모형의 적합도 및 변인들의 영향력이 달라지는지를 검증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BMI에 따라 연구대상을 저체중집단, 정상체중집단 및 과체중집단으로 구분하고, 본 연구의 가설모형의 적합도가 집단에 따라 달라지는지를 검증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결과 부정적인 섭식행동에 비해 수행불안과 학습몰입에 대한 모형의 설명량이 적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수행불안과 학습몰입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변인들을 탐색하여 모형에 포함시킬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관련 선행연구에서는 친구와의 관계, 사회비교 및 어머니와의 상호작용이 청소년들의 수행불안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김정민, 이정희, 2008; 백주현, 2008; Bruch & Heimberg, 1994; Caster, Inderbizen, & Hope, 1999), 학습몰입의 경우에도 부모와의 애착이나 양육행동이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남정미, 2010; 전명순, 2007). 즉, 수행불안이나 학습몰입은 대인관계에서의 상호작용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대상화이론에서 강조하는 대인관계에서의 성적대상화 경험을 선행변인으로 함께 포함시킬 경우 수행불안 및 학습몰입에 대한 설명력 또한 높아질 것이라는 추론을 가능케 한다. 따라서 추후 연구에서는 대중매체에 의한 성적대상화 경험 뿐 아니라 외모에 대한 또래의 비판이나 외모에 대한 부모의 기준 등 대인관계에서의 성적대상화 경험을 선행변인으로 채택하여 그 영향력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공정거래위원회 (2011). 대중문화예술인(가수중심) 표준전속계약서. http://www.ftc.go.kr

구자연 (2010). 한국판 청소년용 대상화된 신체의식 척도(K-OBC-Y)의 타당화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김시연, 백근영, 서영석 (2010). 대인 성적 대상화 경험과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기준의 내면화가 섭식장애 증상에 미치는 영향: 무용 전공 여대생과 일반 여대생 비교.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15(4), 613-635.

김정민 (2009). 여자 청소년의 사회불안 감소를 위한 인지행동집단상담 프로그램과 NLP집단상담 프로그램의 효과비교. 상담학연구, 10(2), 849-866.

김정민, 이정희 (2008). 또래수용, 우정의 질 및 학업수행이 청소년의 사회불안과 우울증상에 미치는 영향. 상담학연구, 9(4),

www.kci.go.kr

1747-1767.

김훈순 (2001). 한국 뮤직비디오의 포스트모더니즘과 성정치학. 한국방송학보, 15(3), 87-128.

남정미 (2010). 청소년의 애착이 자기주도적 학습 및 학습 몰입에 미치는 효과. 고려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백주현 (2008). 여자 청소년의 수치심과 사회비교가 사회불안 및 섭식태도에 미치는 영향. 명지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석임복, 강이철 (2007). Csikszentmihalyi의 몰입 요소에 근거한 학습몰입 척도 개발 및 타당화 연구. 교육공학연구, 23(1), 121-154.

선안남 (2008). 자기 대상화, 신체 수치심이 여대생의 섭식 행동에 미치는 영향: 성역할 정체감 유형에 따른 비교.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손은정 (2007). 공적 자기의식, 신체에 대한 감시, 신체에 대한 수치심이 섭식행동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9(3), 735-750.

오경자, 문혜신 (2002). 한국판 아동 , 청소년용 사회 불안 척도의 타당화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21(2), 429-443.

오상화, 나은영 (2002). 대중매체 소비가 여대생의 신체변형에 대한 태도 및 행동에 미치는 영향과 그 매개 과정. 한국심리학회지: 소비자 · 광고, 3(2), 141-161.

이민규, 고영택, 이혜경, 황을지, 이영호 (2001). 한국판 식사태도 검사-26의 타당화. 정신신체의학, 9(2), 153-163.

이상선, 오경자 (2003). 외모 관련 사회문화적 태도 설문지의 타당화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22(4), 913-926.

이지혜 (2010). 자기결정성 학습동기, 메타인지, 자기주도적 학습능력 및 학습몰입과 학업성취 간의 구조적 관계. 한국교육학회, 48(2), 67-92.

장희순, 김태련 (2006). 대중매체 노출이 신체상 지각과 상태 신체 존중감에 미치는 영향. 한국청소년연구, 17(2), 57-83.

전명순 (2007). 남자중학생이 지각한 부모 양육행동이 남자중학생의 성취동기 학습몰입에 미치는 영향. 명지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조영미 (2005). 아동 및 청소년기의 신체상. 가톨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조희경, 이정윤 (2010).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영향과 여자 청소년의 이상섭식행동의 관계: 신체 비교와 인지왜곡의 매개효과. 청소년 상담연구, 18(1), 1226-1432.

질병관리본부, 대한 소아과학회, 소아 청소년 신체 발육 표준치 제정위원회 (2007). 소아·청소년 표준성장도표. http://www.cdc.go.kr

Andsager, J., & Roe, K. (2003). "What's your definition of dirty, baby?" Sex in music video. *Sexuality and Culture, 7*(3), 79-97.

Aubrey, J. S. (2006). Effects of sexually objectifying media on self objectification and body surveillance in undergraduates: Results of a 2-year panel study. *Journal of Communication, 56*(2), 366 - 386.

Augustus-Horvath, C. L., & Tylka, T. L. (2009). A test and extension of objectification theory as it predicts disordered eating: Does Women's Age Matter?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52*(2), 253-265.

Beidel, D. C., Turner, S. M., & Morris, T. L. (1995). A new inventory to assess childhood social anxiety and phobia: The Social Phobia

www.kci.go.kr

and Anxiety Inventory for Children. *Psychological Assessment,* 7(1), 73-79.

Bruch, M. A. & Heimberg, R. G. (1994). Differences in perceptions of parental and personal characteristics between generalized and nongeneralized social phobics. *Journal of Anxiety Disorders, 8*(2), 155-168.

Buchanan, T. S., Fischer, A. R., Tokar, D. M., & Yoder, J. D. (2008). Testing a culture specific extension of objectification theory regarding African American women's body image. *The Counseling Psychologist, 36*(5), 699-718.

Caster, J. B., Inderbitzen, H. M., & Hope, D. (1999). Relationship between youth and parent perceptions of family environment and social anxiety. *Journal of Anxiety Disorders, 13*(3), 237-251.

Csikszentmihalyi, M. (1990). *Flow: The psychology of optimal experience*. New York: Harper Perennial.

Daniel, S., & Bridges, S. K. (2010). The drive for muscularity in men: Media influences and objectification theory. *Body Image,* 7(1), 32-38.

Emerson, R. A. (2002). "Where my girls at?": Negotiating Black womanhood in music videos. *Gender and Society, 16*(1), 115 - 135.

Fairburn, C. G., Marcus, M.D., & Wilson, G. T. (1993). *Cognitive-behavioral therapy for binge eating and bulimia nervosa: A comprehensive treatment manual.* In C. G. Fairburn & G. T. Wilson (Eds.), Binge eating: Nature, assessment and treatment (pp. 361-404). New York: Guilford Press.

Field, A. E., Javaras, K. M., Aneja, P., Kitos, N., Camargo, C. A. Jr, Taylor, C. B., Laird, N. M. (2008). Family, Peer, and Media Predictors of Becoming Eating Disordered. Arch *Pediatr Adolesc Med, 162*(6), 574-579.

Fredrickson, B. L., & Roberts, T. (1997). Objectification theory: Toward understanding women's lived experience and mental health risks. *Psychology of Women Quarterly, 21*(2), 173-206.

Fredrickson, B. L., & Harrison, K. (2005). Throwing like a girl: Self-objectification predicts adolescent girls' motor performance. *Journal of Sport & Social Issues, 29*(1), 79 - 101.

Garner, D. M., & Garfinkel, P. E. (1980). Sociocultural factors in the development of anorexia nervosa. *Psychological Medicine, 10,* 647-656.

Gilbert, N., & Meyer, C. (2003). Social anxiety and social comparison: Differential links with restrictive and bulimic attitudes among nonclinical women. *Eating Behaviors, 4*(3), 257-264.

Gow, J. (1996). Reconsidering gender roles on MTV: Depictions in the most popular music videos of the early 1990s. *Communication Reports, 9*(2), 151-161.

Grabe, S., & Hyde, J. S. (2009). Body Objectification, MTV, and Psychological Outcomes Among Female Adolescents. *Journal of Applied Social Psychology, 39*(12), 2840-2858.

Harper, B. J., & Tiggemann, M., (2008). The effect of thin ideal media images on women's self-objectification, mood, and body image. *Sex Roles, 58*(9-10), 649-657.

Heinberg, L. J., Thompson, J. K., & Stormer, S. (1995).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the Sociocultural Attitudes Towards Appearance

www.kci.go.kr

Questionnaire. *International Journal of Eating Disorder, 17*(1), 81-89.

Impett, E. A., Schooler, D., & Tolman, D. L. (2006). To be seen and not heard: Femininity ideology and adolescent girls' sexual health. *Archives of Sexual Behavior, 35*(2), 131-144.

Jung, J., & Forbes, G. B. (2007). Multidimensional assessment of body dissatisfaction and disordered eating in Korean and U. S. college women: A comparative study. *Sex Roles*, *55*(1-2), 39-50.

LaGreca, A. M., & Stone, W. L. (1993). Social Anxiety scale for children-revised: Factor structure and concurrent validity. *Journal of Clinical Child Psychology, 22*(1), 17-27.

Lei, M., & Lomax, R. G. (2005). The effect of varying degrees of nonnormality in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A Multidisciplinary Quarterly, 12*(1), 1-27.

Lindberg, S. M., Hyde, J. S., & McKinley, N. M. (2006). A measure of objectified body consciousness for preadolescent and adolescent youth. *Psychology of Women Quarterly, 30*(1), 65-76.

Lindberg, S. M., Grabe, S., & Hyde, J. S. (2007). Gender, pubertal development, and peer sexual harassment predict objectified body consciousness in early in early adolescence. *Journal of Research on Adolescence, 17*(4), 723-742.

Little, T. D., Cunningham, W. A., Shahar, G., & Widaman, K. F. (2002). To parcel or not to parcel: Exploring the question, weighing the merits.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9*(2), 151-173.

Mendelson, B. K., & White, D. R. (1993). Manual for the Body-Esteem Scale for Children. *Concordia University Research Bulletin, 12*(2), 1-10.

Moradi, B., & Huang, Y,-P. (2008). Objectification theory and psychology of women: A decade of advances and future directions. *Psychology of Women Quarterly, 32*(4), 377-398.

Moradi, B., & Subich, L. M. (2004). Examining the moderating role of self-esteem in the link between experiences of perceived sexist events and psychological distress.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51*(1), 50-56.

Moradi, B., & Rottenstein, A. (2007). Objectification theory and Deaf cultural identity attitudes: Roles in deaf women's eating disorder symptomatology.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54*(2), 178-188.

Peterson, K. A., Paulson, S. E., & Williams, K. K. (2007). Relations of eating disorder symptomology with perceptions of pressures from mother, peers, and media in adolescent girls and boys. *Sex Roles, 57*(9-10), 629-639.

Russell, D. W., Kahn, J. H., Spoth, R., & Altmaier, E. M. (1998). Analyzing data from experimental studies: a latent variable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approach.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45*(1), 18-29.

Shrout, P. E., & Bolger, N. (2002). Mediation in experimental and non-experimental studies: new procedures and recommendations. *Psychological Methods, 7*(4), 422-445.

Slater, A. E. & Tiggemann, M. (2010). Body image and disordered eating in adolescent girls and boys: A test of objectification

www.kci.go.kr

theory. *Sex Roles, 63*(1-2), 42-49.

Smolak, L., Levine, M. P., & Thompson, J. K. (2001). The use of the sociocultural attitudes towards appearance questionnaire with middle school boys and girls. *International Journal of Eating Disorders, 29*(2), 216-223.

Stice, E., Mazotti, L., Weibel, D., & Agras, W. S. (2000). Dissonance prevention program decreases thin-ideal internalization, body dissatisfaction, dieting, negative affect, and bulimic symptoms: A preliminary experiment. *International Journal of Eating Disorders, 27*(2), 206-217.

Ward, L. M. (2002). Does television exposure affect emerging adults' attitudes and assumptions about sexual relationships? Correlational and experimental confirmation.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31*(1), 1-15.

Ward, L. M., Hansbrough, E., & Walker, E. (2005). Contributions of music video exposure to Black adolescents' gender and sexual schemas. *Journal of Adolescent Research, 20*(2), 143-166.

Yuan, K.-H., Bentler, P. M., & Kano, Y. (1997). On averaging variables in a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model. *Behaviormetrika, 24*(1), 71-83.

원 고 접 수 일 : 2011. 10. 6
수정원고접수일 : 2011. 11. 14
게 재 결 정 일 : 2011. 11. 24

www.kci.go.kr

한국심리학회지 : 상담 및 심리치료
The Korean Journal of Counseling and Psychotherapy
2011, Vol. 23, No. 4, 1137-1160

The Relations of Exposure to Sexually Objectifying Media to Disordered Eating, Learning Flow, and Performance Anxiety Among Female High School Students

Si Yeon Kim **Young Seok Seo**
Yonsei University

The present study investigated whether music television exposure, disordered eating, learning flow, and performance anxiety were related and that those relations were mediated by internalization of sociocultural attitudes towards appearance, body surveillance, and body shame. 282 female high school students were recruited for this study. Results from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analysis indicated that after controlling for body mass index, the hypothesized fully mediated model showed an adequate fit to the data. All direct paths of interests were significant. Music television exposure significantly predicted internalization and body surveillance, internalization significantly predicted body surveillance and body shame, body surveillance significantly predicted body shame, learning flow and performance anxiety, and body shame significantly predicted eating disorder. The bootstrap procedure exhibited that the links between music television exposure and psychological consequences were fully mediated by sociocultural attitudes towards appearance, body surveillance, and body shame. Implications to counseling practice and future research are discussed.

Key words : sexual objectification, media exposure, female high school students, disordered eating, learning flow, performance anxiety

www.kci.go.kr